

민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당원 투표' 결론

이총 결론 오늘 최고위서 확정... 12~13일 모바일 투표 방식 연합정당 최대 25석 가능... 정의당 불참 의사·민생당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 진영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론짓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비례 연합정당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전 당원 투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 80명 정도 왔는데 20명 정도 발언했고 최고위에서 들은 이야기를 갖고 정리할 것"이라며 "아마 전 당원투표는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고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전 당원 투표를 할지와 실무적인 투표 문항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전 당원 투표 실시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12~13일 권리당원 80만여명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통해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주당-진보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없이 4·15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의 최대 의석수가 137석 정도가 될 것 같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 145~147석 정도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0석 정도 더 이긴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어 1당을 뺏길 뿐 아니라, (통합당이) 국민의당 등과 선거

이후에 연합하거나 합칠 경우 야당이 과반을 가져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선거 후 합당하지 않고 따로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제3교섭단체를 미래한국당이 만들 경우에는 국회 원내 운영에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또 생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할 때도 원내교섭단체에 할당이 되는데 두 당이 연합해 민주당을 협공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례 연합정당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참여하게 되면 비례연합정당이 적어도 23석 이상이 될 것 같다. 25석까지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미래한국당은 17~19석 정도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의당이 불참하고 다른 소수정당들과 연대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 쪽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연합정당

이 19~20석, 미래한국당이 17~18석, 정의당이 5석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이날 연합정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석수를 늘릴 목적으로 잘못된 방식을 활용하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출신의 김경화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정치적 책임을 자당의 당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저열한 술수가 아닐 수 없다"고 연합정당 참여를 일축했다.

하지만 대안신당 출신의 유성열 대표 등 호남계 의원들은 미래통합당에 1당을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참여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의당 참여해 달라"

정치개혁연합, 합류 호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창당을 준비 중인 '정치개혁연합'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참여 결단을 호소했다.

정치개혁연합 조성우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참여 불가 입장을 밝힌 정의당을 향해 "혁명으로 집권한 곳 말고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진보정당은 연합전선로 성장해라"며 "민주당 2중대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재고를 요청했다."

정치개혁연합은 연합정치의 원칙을 제시하며 다른 정당들에도 참여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오른쪽부터), 위성곤, 어기구, 정은혜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철희 합평군수 예비후보 합평군의회 의원직 사퇴

정철희 무소속 합평군수 예비후보가 10일 합평군의회 의원직을 사퇴했다.

정 예비후보는 군의 원칙을 유지하며 군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선거일 30일을 앞두고 사퇴할 경우 군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군의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예비후보의 사퇴로 군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질 전망이다. 정 예비후보는 합평군 재난안전관리과장과 합평군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합평=황운학 기자 hwang@

민주당-한국노총 '총선 연대' 선언

공동선대기구 구성...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구성키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오후 4·15 총선을 위한 공동선거대책 기구를 구성, 총선 연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협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부' 5대 비전

'20대 공동약속'을 제시하고,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협력한다"면서 "이행 방안으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노동존중 후보자'를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후보로 한다"고 발표했다.

5대 비전은 ▲노동존중 플랜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현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평등복지국가 실현 등

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공동약속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활동 권리 보장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 기본권 강화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국제 수준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를 개선하고 노동회의소 설립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이병훈 "민주당-한국노총 연대 환영"

동남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로 선언하고 제21대 국회에서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의원단'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협약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위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우리 노동계가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서 정치권



도 정쟁을 중단하고 노동계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고,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평등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동철 "문재인 정권 성공 민생당이 돕겠다"

광산갑 출마 선언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제3당이 사라진 한국 정치는 무한 대립과 정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제3당의 분열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역할



적으로 제3당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고뇌와 번민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도록 하는 역할은 작지만 제3정당인 민생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지원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목표 유치 최선"

목포시 예비후보

민생당 박지원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해 목표로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을 통과시키고 타당성조사용역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2018년 법안을 발의해서 세계 최초로 '섬의 날'



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고, 작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식도 삼학도에 유치했다"며 "문화관광부 4대 관광거점도시 목표 선정에 이어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으로 목표를 '섬의 수도', '국가대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인화, 4·15 총선 준비·정책선거 실천 결의

광양·곡성·구례 예비후보

무소속 정인화 광양·곡성·구례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지지자들과 '4·15 총선 준비·정책선거 실천'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께서도 '준법·정책 선거 실천 결의'에 뜻을 함께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짜우지 않는 정치, 일하는 정치, 신뢰 받는 정치를 함께 이루어 순천·광양·곡성·구례 발전의 마중물이 되



자"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광양·곡성·구례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먼저 깨끗한 준법선거운동, 사·군민을 위한 정책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망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교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비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합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영업직	0명	합성목재 영업
설계직	0명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관급 영업 및 협력사공업체)을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전국 시·군구

☑ 자격 및 우대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광고서 남풍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 주요 아이템: 합성목재 데크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 문의 및 접수: (주)에니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 033)746-8953 / anywood1201@naver.com

www.any-wood.com

조달우수제품/ 특허/ 성능인증/ 녹색기술/ 환경표지/ KS인증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지 266-7601
	·용 북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충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구	·남 부 675-5530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양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밀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6 451	·광 선 944-0444	